

목포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누릴 정원 만든다

생활 속 정원문화 향유 첫발 100억 들여 '갯바위 정원' 조성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 신청

목포시가 '정원관광' 개념을 도입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첫발을 내딛는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든 목포시민 누구나'라는 핵심 목표로 일상생활 속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심정원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일상생활 속 정원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방정원 조성에 나선다. 김종식 시장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이자 환경 친화적인 지역의 휴양문화공간으로 갯바위 일대가 '목포시 제1호 지방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민들이 많이 찾는 입암산 동광농장 일대. 4월이면 벚꽃이 만개해 '목포의 무릉도원'으로 불린다.

이만개해 '목포의 무릉도원'으로 불리는 명소다. 이곳에 목포시는 '문화와 예술, 아름다운 자연을 품다'는 주제로 29만1000㎡에 달하는 정원을 조성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목포시 공무원들과는 지난 14일 전남도 주관 공모사업에 갯바위 지방정원 사업을 신청했다. 전남도는 당초 오는 23일 지방정원 PT발표 심사에 이어 30일 선정 여부와 지원 규모 등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업규모가 늘어나고 공모사업에 신안군 등 지자체가 복수 지원하고 나서면서 지자체간 과열경쟁이 빚어질 것이 예상돼 선정지역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내달 5월말께 선정지역을 발표할 계획으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100억원(국비 50억, 도비 5억, 시비 45억)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도심정원을 조성해 '정원 관광'과 함께 시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모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귀촌인 대상 정착 시기 공모 진도군, 다음달 28일까지

진도군이 귀촌인을 대상으로 정착 시기를 공모한다. 시기 공모전은 진도 내에 귀촌인의 삶의 모습과 다양한 경험을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과 공유하고 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기간은 5월 28일까지이며 지역에 거주하는 귀촌인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귀촌 준비부터 실행, 정착까지 전 과정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를 주제로 A4용지 3장 분량으로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상 1명(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상금 50만원), 장려상 5명(30만원), 입선 10명(상금 10만원)을 시상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수상작은 진도군 귀농산어촌 정착 시기공모 작품집 '진도에 살아리랏다'에 실릴 예정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세계유산 보호 해양경찰이 함께 합니다"

완도해경, 청산도 구들장은 보호 경비함·구조정 해상순찰 경비 섬 주민·관광객 안전에도 앞장

"세계유산 보호에 해양경찰이 함께 합니다." 해양경찰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도 청산도에 서만 찾을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농업유산(구들장논)을 바다와 육지에서 보호한다. 이 임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다. 완도항에서 뱃길로 1시간여 떨어진 청산도는 한국 농경문화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 섬의 양종리와 부흥리에는 세계농업유산인 구들장논이 있다. 북방의 온돌문화와 남방의 벼농사 문화가 결합돼 만들어진 구들장논은 한국 농경문화와 민족형성의 근간을 보여준다.



해양경찰들이 경비함을 타고 청산도 구들장은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완도해경은 해양지안 확보와 세계 농업유산 보호 등을 위해 청산도 외해에 300~500t급 경비함을 상시 배치하고, 연안구조정을 통한 순찰을 해 섬 일대 해안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내륙에 있는 청산출장소는 유적지와 섬 일대 순찰도 한다. 세계농업유산은 넓은 의미에서 자연경관도 포

함되기에 항상 푸르다는 청산도가 해양오염과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훼손이나 파괴되지 않도록 해양경비를 하고 있다. 연안구조정 순찰을 맡은 최세원 경사는 "해양경찰이 해양주권 수호와 함께 세계농업유산 보호 등 문화적 가치 보전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해경은 유산보호와 함께 청산도와 인근 해

? 세계농업유산 등재 구들장논
마치 구들장처럼 넓고 얇은 돌을 활용해 바닥과 배수로 등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얹어 만든 논이다. 이렇게 축조하면 논 하저에 많은 공간이 생겨 소모되는 자재량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고 비탈진 경사지에 논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배수로로 통한 농업용수의 재활용과 담수 저장이 가능해 홍수 예방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구들장논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돼 2014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역에서의 사고 예방과 섬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여객선과 낚시배가 무사히 항해하는지,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때때로 여객선의 안전을 위한 에스코트를 비롯해 해변과 외딴 섬을 순찰하고 있다. /완도=정은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읍 주민세 대폭 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무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2021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전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도적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선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피해가 지속되자 올해 초부터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감면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 의결을 통해 1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2021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2020년 기준으로 개인분 3만5034명, 사업소분 5529곳, 종업원분 382건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영광군, 텃밭 무료 분양

영광군이 군민에게 직접 길러 먹는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텃밭을 무료로 분양한다.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줄 '물무산 행복 텃밭'을 무료로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분양 규모는 총 34구획이며, 영광군에 실제 거주하는 개인·가족 단위 또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이 분양 대상이다. 분양 신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여 오는 2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은 오는 30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달 1일부터 텃밭을 개장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텃밭 분양을 통해 군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건강한 여가생활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신안군은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박우량 군수와 목포대양에스씨(주) 이승환 사장, 김길동 신안군수협조합장, 최명갑 신안군 김 생산자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 종자 스마트 배양시설'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김 종자 스마트 배양시설' 시범사업 업무협약

신안군이 김 종자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해 김 양식 산업 기반 강화와 종자 수급 안정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박우량 군수와 목포대양에스씨(주) 이승환 사장, 김길동 신안군수협조합장, 최명갑 신안군 김 생산자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 종자 스마트 배양시설'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 배양시설인 시범 기반으로 한 김 종자 배양장치 기술을 접목해 우량 김

종자 개발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이 해소되고 양식 초기 김 갯병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 특히 노동력 절감으로 우량의 김 종자를 생산, 보급해 김 양식여가의 소득증대와 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 지역 김 양식은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갯벌 8070ha에서 506여가 4만9240t을 생산, 연간 55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